

'98 제4차 방위력 개선 사업

제 2 MCRC 설치 등 890억원 집행 승인

이번

방위력 개선 사업은 '98년도 8~9월중 「방위력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집행 승인된 12개사업 총 890(3570)억원에 대한 내용이다.

■ 원격무선 폭파장비

본 사업은 공병부대 및 폭발물 처리반에서 현재 운용중인 구형유선 폭파장비를 국내 연구개발한 신형 원격 무선 폭파장비로 대체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소요 813세트를 '01년까지 134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회에는 000세트 확보하기 위해 260여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각종 탄약

본 사업은 육군 보유탄약중 전투예비 30일 미만의 저수준 탄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8호 장약 및 근접신관 000발을 확보하기 위해 250여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전투장비 보강 (육·공군)

본 사업은 육·공군의 편제부족 및 노후교체장비 소요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1/4톤 신형지프 등 육군장비 18종 846점과, 항공기 급유차 등 공군장비 13종 362점 확보를 위해 177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화학물자 (육·공군)

본 사업은 적 화생방 공격시 개인보호와 제독을 위한 육·공군용 침투보호의 등 화학물자 4종 확보를 위해 48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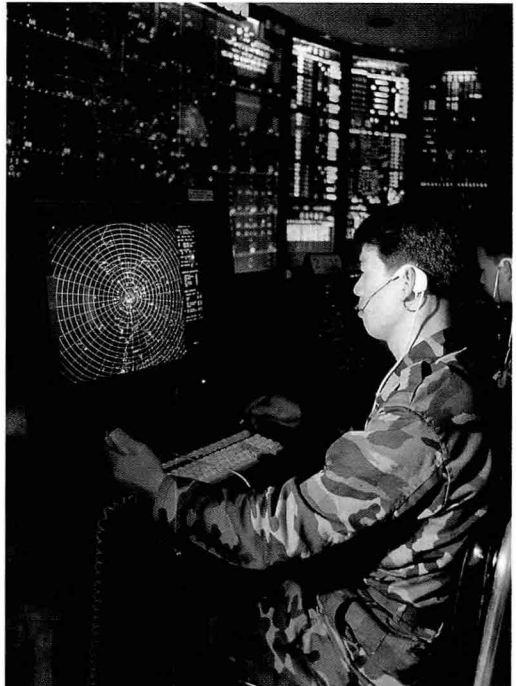
■ 해상감시 레이더

본 사업은 전탐기지 및 함정의 노후 해상감시레이더(SPS-10K)를 '95년도에 국내업체(대우통신)가 자체개발한 신형레이더(SPS-96K)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회에는 '00년까지 주장비 25대를 확보하기 위해 96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제 2 MCRC

본 사업은 한반도 지역의 방공감시체계 및 조기경보체

▼적기의 동태를 조기에 포착해 전투요격기를 비상 출격시켜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방공관제 시스템



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제2의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자동화 방공체계)를 ○○지역에 설치 운영 하는 사업으로 '02년까지 2,755억원을 투자하여 자동화 방 공체계 1식을 정부관리 업체(쌍용정보통신)주도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확보할 계획이다. 금회에는 주장비 구매 및 S/W개발비, 시설공사, 통신공사 등 2,714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현용 MCRC의 항적 및 자료처리, 타체계 연동 등의 제 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고, 복수의 MCRC체계를 보유함으 로써 전시 생존성 향상 및 24시간 무중단 공중감시체계로 운용, 방공 작전의 효율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 시험평가전대 창설

본 사업은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 시험평 가능력을 구비한 시험평가전대를 창설하는 사업으로, 금 회에는 창설부대를 위한 토목공사 및 부대건물, 격납고 등 시설공사를 위해 108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추후 국내개발종인 KTX-I, KTX-II 항공기에 대한 독자 적인 비행시험 평가능력을 구비하고, 성능개량 및 수명관

리에 대한 인증능력을 구비한 평가전문기관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 시설사업 (3건)

* 592ASP 이그루화(탄약지원부대 이그루 시설)

본 사업은 '99년까지 251억원을 투자하여 동부지역 작 전부대의 탄약 일반지원을 위한 노후 탄약고 시설교체 및 병영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에는 이그루 탄약 고 10동, 통합막사 및 토목공사를 위해 30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지상통신 ES/EA 시설

본 사업은 '99년에 전력화 되는 동부지역 지상통신 전 지전장비 운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공사 사업으로, 금회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위해 60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 서북도서 작전시설 보강

본 사업은 서북도서의 해안경계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으로, 금회에는 해안경계 철조망 12km와 용치 1,700여개를 설치하기 위해 59억원을 집행승인 하였다.

'99 국방 예산 편성안

방위력 개선비 600억원 증액 편성

'99년 도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과 장병사 기복지에 중점을 두고 13조 7,490억원 으로 편성하였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5% 증가한 4조 1,400억원, 운영유지비는 1.1% 감소된 9조 6,087억원이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비는 600억원을 증액 편성

하여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 비율을 29.6%에서 30.1%로 높였다. 그리고 국산무기 체계의 전력 화를 확대하고, 외자예산을 '98년 15.2억불에서 '99년, 10.7 억불로 4.5억불을 축소 편성하여 외자소요를 최대한 억제 하였다.

운영유지비는 군 구조 조정 및 각 분야에 걸친 국방개 혁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

'99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구 분	'98예산	비중	'99예산안	비중	증 감	
						%
○국 방 비	13조 8,000	100.0	13조 7,490	100.0	△510	△0.4
• 방위력개선편비	4조 802	29.6	4조 1,403	30.1	601	1.5
• 운영유지비	9조 7,198	70.4	9조 6,087	69.9	△1,111	△1.1
(인 건 비)	(5조 2,903)	(38.3)	(5조 604)	(36.8)	(△2,299)	(△4.3)

록 편성함으로써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운영유지비의 많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장병 사기복지 향상과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따라 병영기본시설 확충, 군 숙소 확보, 잠수함 수당과 접적지역 근무수당 인상 등 사기복지 분야에 6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의 전비태세 유

지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K-1 전차 등 주요 전투장비 유지에 80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며, 만반의 전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상군 21세기 전략 환경에 대비

제6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육군

교육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9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후원으로 21세기 전력환경에 대비하여 지상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올해로 6회째 실시되는 이 세미나는 그동안 분야별 무기체계의 발전방향과 현용장비의 운용실태 및 도태계획 등을 전력의 총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현황분석과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 연구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무기체계의 소요창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21세기를 대비, 지상전장 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은 전장기능별 발전개념에 의한 운용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



체는 신기술 소개 등 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 여러 기관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참의 「2000년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새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육군교육사령부의 「육군 Vision 2010」, 「육군 현존전력 극대화」, 「작전운용성능 설정기준」에 대한 연

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화력/유도·기동·정보/전자전·화생·지휘통제/통신·방공 등 각분야에서 3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많은 참석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지상무기체계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산·연·군의 상호기술정보교환과 업무협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합 지휘 통신체계 구축이 승리의 요체

國科研, 제2차 통신/전자 학술대회 개최

국방

과학연구소 제5 연구개발본부가 주관한 제2차 통신/전자부문 학술대회가 9월 25일 국과연 대강당 및 8개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97년 통신/전자 무기체계 분야 중 전자 및 센서 분야에 관한 제1차 학술대회에 이어, 이번 제2차 학술대회에서는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학계 및 한국통신 확보한 단장을 비롯한 민간 연구기관의 민/군 위성통신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멀티미디어 우주통신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민/군 위성통신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4개 분과(체계공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대전자전 위성통신 기술, 중계기/단말기/안테나 기술, 군 통신 기반기술)로 나누어 100편의 기술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배무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환영사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0년대 미래전에서는 누가 먼저 적의 정보를 획득하여 전쟁지휘의 중추신경인 지휘 통신 시설을 무력화시키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며, 또한 미래전은 지휘관들이 모든 전장상황이 종합된 동영상을 지도를 보면서 직접 전장 지휘를 하는 등 '통합 전장

지휘 통신체계'를 그 근간으로 할 것이므로, 적의 전장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성통신 기술이 전승의 요체가 될 것이며 즉 군 위성통신체계를 이용한 전장작전 반응 시간의 단축이 곧 전쟁의 승리로 연결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달 8월 31일 로켓발사를 통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기술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음"을 밝히면서, "우리도 산업체, 학교, 연구소, 그리고 군의 총체적인 협력체제를 통해서 군 위성통신체계 분야의 기술발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미래 정보전 시대를 대비한 첨단 군 위성통신 기술의 정보교류와 산·학·연 및 군의 관련 종사자들간의 상호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이 분야의 기술능력을 체계적으로 축적,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이 분야를 중점으로 급변하는 현대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면서, 국내기술기반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예년과 달리 어려운 여건하에서 적은 비용으로(사용예산 약 7백만원) 최대의 성과를 얻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학술대회였다.